



가수 아이유(가운데)가 1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더 골든아워: 오렌지 태양 아래' 무대에서 노래를 열창하고 있다.

사진제공 | 이담엔터테인먼트

열기구 탄 아이유 두둥실 '환상적 퍼포먼스'

2008년 9월 18일 열다섯 나이로 가요계에 데뷔한 옛된 소녀가 14년의 시간이 흐른 2022년 한국 여자가수 최초로 잠실발에 우뚝 섰다. 8만여 관객과 함께 무대를 달군 주인공은 아이유(이지은·29).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이 케이팝의 진짜 대세임을 입증했다.

그가 17일과 1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잠실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더 골든아워: 오렌지 태양 아래'를 열고 8만800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독보적인 '흥행 퀸'의 명성을 과시했다. 주최 측은 관객 안전 등을 고려해 회당 4만4000장씩 티켓을 팔아 발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매진시켰다. 1회차 기준 약 80억 원(장당 9만9000원~16만5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국내 여성 가수 최다 관객 기록이자 최고 수익으로 추산된다.

무엇보다 잠실주경기장은 가요계의 '꿈의 무대'라 불려왔다. 회당 최대 10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스타급 가수들만 오르는 공연장으로 꼽혀왔다. 조용필, 서태지, 그룹 방탄소년단과 H.O.T., 싸이 등 남자가수들이 무대를 장악했고, 여성가수로는 2012년 내한공연을 펼친 레이디 가가가 유일했다.

● 열기구와 드론쇼… 화려한 볼거리

이번 공연은 볼거리로 넘쳐났다. 드론쇼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공연의 막을 열었다.

17·18일 이틀간 8만8000여 관객 동원 1회차에 80억 매출 국내 여성가수 최초 밤하늘 수놓은 '드론쇼'에 팬들 환호성 100명의 댄서들 안무 한편의 동화 연상 청력기능 문제 고백에 팬들은 떼창 응원



가수 아이유가 1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더 골든아워: 오렌지 태양 아래'에서 열기구를 타고 등장해 객석을 가득 메운 4만 4000여명의 팬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이담엔터테인먼트

수십 대의 드론이 불빛을 내뿜으며 아이유의 초상화와 '너랑 나'의 노랫말에 등장하는 시계를 형상화했고, 팬들은 끊임없이 환호했다.

25인조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화려하게 불꽃이 터졌고, 100명의 댄서들이 합을 맞춘 안무를 한편의 동화처럼 펼쳐냈다.

압권은 분홍빛 대형 열기구였다. 넓디넓은 주경기장에 대형 열기구가 두둥실 떴다. 아이유는 '스트로베리 문'을 부르며 공연장을 한 바퀴 돌았다.

● '개방성 이관증'… 청력 기능 난조 고백

아이유는 3시간30분가량 히트곡을 쏟아냈다. 신인 아이유를 세상에 알린 '좋은날'부터 "가장 아름다운 때"를 기억해달라고 당부한 '라일락', '겨울잠', '나만 몰랐던 이야기' 등을 소화하며 무대를 꽉 채웠다. 앙코르 무대에서는 청력 기능으로 컨디션 난조를 겪어온 사실을 공개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아이유는 개방성 이관증을 앓고 있다. 입과 귀로 연결된 이관이란 통로가 계속 열린 상태로 있어 본인이 말하는 것이 울리듯 들리는 증상이다. 아이유는 위험성이 따르는 수술을 안 하고 시술로 치료하고 있다. 그런 그를 8만8000여 팬들은 아낌없는 환호와 박수, '떼창'으로 응원하고 격려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술방'에 몰리는 스타들 음주 콘텐츠 뜨는 까닭

"새롭고 솔직한 모습으로 화제성 잡아"
일각선 "유해성 높아, 책임감이 중요"

유튜브 음주 콘텐츠, 이른바 '술방'이 뜨고 있다. 스타들의 잇단 출연에 화려한 게스트, 나아가 음주 행태로 자칫 구설에 오를까 몸을 사려온 아이돌까지 잇따라 나서고 있다. 'B급' 콘텐츠라는 눈총은 이제 옛일이 됐다. 스무 살 래퍼 이영지는 시원시원하고 솔직한 진행으로 유튜브 채널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을 이끌고 있다. 게스트를 집에 초대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콘셉트로, 올해 6월 첫 영상을 올려 현재까지 154만 구독자를 모았다. 7월 공개한 걸그룹 있지의 채령과 그룹 세븐틴의 호시 편은 석 달 만에 각각 조회수 1230만과 1038만 뷰를 기록했다. 내한한 팝가수 크리스토퍼도 게스트로 출연했다.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이 진행하는 '스튜디오 흑: S TUDIO HOOK' 채널의 '술트리트 파티'도 인기다. 신화 전진, 에픽하이 미쓰라진, 정은지·이선빈, 정준하, 아이키·재재 등이 출연한 시즌1이 인기를 끌자 올해 6월부터 시즌2를 선보이고 있다. 은지원·장수원, 에스파, 박재범, 김해준·이용주, SF9의 로운 등이 출연했다. 유튜브 풍자·히밥 편이 236만 뷰로 최고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역시 슈퍼주니어 규현을 내세운 1인 음주 콘텐츠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를 2020년 '채널 십오야'에 공개했던 나영석 PD는 시즌2인 '내 어깨를 봐 탈골 뛴잖아'를 2일 론칭했다. 규현이 은지원·송민호와 MC로 나서 게스트와 술을 마시는 콘셉트로 변화를 줬다. 더 보이즈의 주원 편이 공개 3일 만에 63만 뷰를 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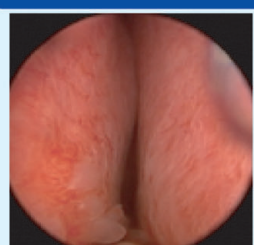
19일 한 기획사 관계자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것은 물론 새롭고 솔직한 모습을 꾸밈없이 보여줄 수 있어 연예인들도 선호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일반 방송프로그램보다 화제성이 높아 홍보프로모션을 위한 콘텐츠로도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음주 콘텐츠야말로 소재와 방식이 자유로운 유튜브에 최적화된 콘텐츠"라면서도 "유튜브는 1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플랫폼이니만큼 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아이돌을 내세우는 콘텐츠에서는 과도한 음주의 유해성을 늘 경계하는 제작진의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전립선비대증



▲ 비대해진 전립선

**당일 검사 이후~
시술 후 퇴원** 지향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결찰술

신의료기술등재 (2015. 5. 고시)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요도폐색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립선비대증 치료

전립선의 크기가 과도하게 커거나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경우 **레블릭스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비대증 수술도 가능합니다.

삶의 질을 악화시킬수도 있는 과민성방광 증상도 전립선과 함께 치료 가능합니다.

※ 경우에 따라 염증과 출혈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 (당일 원스탑 지향)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발기 원리를 이용한...임플란트 보형물 시술로...



<음경 보형물 삽입도와 후면 팀 엑스텐더가 조립된 상태>

팽창형 음경임플란트를 이용한 **임플란트 보형물** 시술

※ 수술 후 염증, 주변 조직 손상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수술 | 팽창형보형물 | 전립선수술 (유로리프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 220818-중-143523

유로진남성의원 <광고> (부산)

남성중점진료

- 남성수술
- 전립선수술(유로리프트)
- 발기부전(팽창형 보형물)
- 여성형 유방증 수술

24시간 상담

유로진(부산)이 함께 하겠습니다.

051) **802-7717**



부산광역시 서면역 주디스 태화백화점 3층

NAVER 부산유로진남성의원 검색